



총무원장 스님은 임기 8년 동안 매일 어려운 곳을 찾아 따뜻하게 손을 잡고 함께 울고 웃었다. 연말에 소의 이웃을 찾아 쌀 포대를 나르는 총무원장 스님 모습.

사람이 사는 곳에 종단이 있었다

수시로 사회적 약자 찾아 위로 취임 이후 매달 복지시설 방문 8년간 74회 걸쳐 '자비 실천'

지난 7월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서울 답십리정소년독서실을 찾았다. 그 시설은 희귀 난치병인 비스코트 올드리치 증후군을 앓는 최세립(14세) 군의 누나와 형이 다니는 독서실이었다. 최 군의 어머니 조상희 씨가 대신 스님을 맞이했다. 최 군은 작은 감명에도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외출이 쉽지 않아 손님이 찾아갈 수 없었다.

세 살 때부터 난치병으로 치료중이라는 말을 들은 총무원장 스님은 최 군의 어머니에게 염주를 풀어 건넸다. “제가 늘 기도하는 염주인데, 기도 많이 하시고 힘내세요.” 진심이 담긴 원장 스님의 위로에 조상희 씨는 눈물을 터뜨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009년 취임 이후 매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는 행보를 이어왔다. 첫 방문지는 용산잠사 현장이었다. 2009년 1월 이명박 정권 초기, 용산 재개발 과정에서 “적은 보상금으로 갈 곳이 없다”며 생존권을 지키려던 사람들을 경철이 무리하게 진압했다. 그 과정에서 6명이 화재로 인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장기간에 걸친 농성이 펼쳐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점점 잊혀져가고 있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취임 후 첫 대외 활동으로 그 현장을 찾았다. 20여 분간 머물면서 고인들을 천도한 스님의 행보는 “용산 잠사가 발생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이를 시작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스님의 발걸음은 다양하게 이어졌다. 서호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급식 봉사하고, 프랑스 박물관 지하 창고에 있던 ‘직지’를 찾아낸 박병선 박사를 위로 방문했다. 당시 박 박사는 수원의 한 병원에서 외롭게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자 민간인 분향소를 찾아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2010. 11)하고, 안성 하나원을 찾아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축원(2011. 3)을 올리기도 했다. 겨울을 앞두고 서울 흥재동 개미마을을 찾아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주민들을 위로(2010. 11)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불교 복지시설만 찾은 것은 아니다. 종교를 가리지 않고, 위로와 후원이 필요한 곳이면 발길을 디디었다. 2010년 5월에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스님이 찾은 곳은 구세군 서울후생원이었다.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독교계에서 운영하는 은평천사원을 방문해 아이들을 위로하는가 하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천주교 성가정입양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종교, 정치, 문화, 이념 대립을 넘어 차별없는 자비를 강조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시설 방문 중 눈에 띄는 곳 중 한곳이 삼정학교(구 삼흥학교)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기숙형 대안학교로, 5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삼정학교가 보충금이 없어 폐교 위기에 몰렸다. 이 소식을 들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탈북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식량난과 경제난을 피해 한국에 왔는데, 이곳에서 또 다시 경제적 아픔을 겪어서 되겠느냐”며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함께 모연활동을 펼쳐 1억원에 달하는 임대보충금을 마련해 전달했다. 이후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몇 명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보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매달 한차례 갖는 시설방문에 있어 ‘사회적인 아픔’의 현장을 찾는 일도 많았다. 구미 불산누출 피해주민을 방문(2012. 10)하고, 한센병의 아픔이 아직 남아 있는 소록도(2011. 12)를 찾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다음달, 스님은 팽목항에서 유가족의 손을 잡았다. 또 지난 6월에는 해고 철도를 요구하던 장기간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KTX 여성무원들을 찾아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장애등급폐지를 주장하면 농성중인 현장(2017. 1)을 찾아 그들의 주장을 듣는 시간도 있었다.

2015년 10월 총무원장 스님의 발걸음은 영등포 쪽방촌으로 향했다. 한명이 겨우 생활할 정도의 공간에서 추위와 싸우며 겨울 나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연탄과 김치를 전달했다. 수년간 지속적인 원장 스님의 자비나눔 행보에 감동을 받은 청년들과 불자들은 ‘아이연탄맨’ 캠페인을 펼쳤다. 루게릭병 환자를 지원하는 ‘아이스버지 챌린지’에서 착안한 릴레이 모금 캠페인으로, 2014년에 원장 스님을 비롯해 300여 명이 참여해 1000만원의 기금을 모았다. 이 기금은 정릉3동의 장애인·한부모·두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 83가구의 연탄지원에 사용됐다.

나눔은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반세기, 일제 압박과 전쟁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고 급속한 경제성장에 치중해 왔다. 그 와중에 ‘나눔’이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가치를 잃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임기 8년동안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외로운 곳’을 찾아 자비와 보시를 베풀며 나눔의 가치를 환기 시켰다.

“긴긴 세월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 격정이 된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라며 그 희망의 끈에 힘을 보태겠다.”(2017. 6월 KTX 여성무원 방문시)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이 한마디 말에서 “왜 사회 지도층이 사회의 외롭고 힘든 곳을 찾아야 하는지” 이유가 들어있다. 안익수 기자 isahn@ibulgyo.com

| 연도 | 일자 | 내역 | 대상명 |
|---------|---------|----------------------|----------------------|
| 2009년 | 11월 04일 | 용산 잠사현장 방문 | 서호노인복지회관 |
| | 12월 10일 | 서호노인복지회관 | 박병선 박사 |
| | 12월 10일 | 박병선박사(직지대모) | |
| | 02월 08일 | 다문화 가족 | |
| | 03월 15일 | 나눔의 집 | 나눔의 집 |
| | 03월 31일 | 해방보육원 | 해방보육원 |
| | 04월 14일 | 송가원(경은 도자문화체험 학교) | 송가원 |
| | 05월 17일 | 이웃중고(구세군) | 구세군서울후생원 |
| | 06월 22일 | 파리말요양원 | 파리말요양원 |
| | 2010년 | 08월 25일 | 송가원 |
| 09월 13일 | | 의정부 고도스 | 의정부 고도스 |
| 10월 09일 | | 평화의 집 | 평화의 집 |
| 11월 05일 | | 연탄나눔기(홍재동 개미마을) | 개미마을 |
| 11월 30일 | | 연평도 포격 관련 민간인 분향소 방문 | 연평도 주민 |
| 12월 24일 | | 연평도 주민 대표 필담방 방문 | 은평천사원 |
| 01월 27일 | | 서울노인복지센터 | 서울노인복지센터 |
| 02월 17일 |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 03월 17일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 04월 18일 | |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 |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 |
| 2011년 | 05월 03일 | 국립소록도병원 | 국립소록도병원 |
| | 06월 24일 | 국군수도병원 | 국군수도병원 |
| | 07월 01일 | 반야노인요양원, 낙산사향원 | 반야노인요양원, 낙산사향원 |
| | 08월 17일 | 전원마을(비닐하우스촌) | 전원마을(비닐하우스촌) |
| | 10월 15일 | 광두리죽구단 | 광두리죽구단 |
| | 12월 20일 | 국립소록도병원 | 국립소록도병원 |
| | 01월 17일 | 종로소방서 | 종로소방서 |
| | 01월 19일 | 개미마을 경로당 | 개미마을 경로당 |
| | 04월 30일 | 삼흥학교 | 삼흥학교 |
| | 07월 24일 | “두개의 문”특별관람 | 영화인(김일민, 홍지유) |
| 2012년 | 08월 14일 | 시대문학무소식사관 | 시대문학무소식사관 |
| | 08월 25일 | 목포해양경찰서 | 목포해양경찰서 |
| | 10월 18일 | 구미 불산누출 피해 주민 방문 | 구미시산업단지 |
| | 12월 20일 | 철원 전방부대 | 철원 6사단 전방부대 |
| | 02월 04일 | 2013평창 동계스피드스케이팅(강릉) | 평창 동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단 |
| | 03월 28일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04월 16일 | 인천해역병역사령부 | 인천해역병역사령부 |
| | 07월 01일 | 참전용사 집(송곡사) | 참전용사 집(신선동) |
| | 07월 22일 | 브루크기념병원(화성) | 브루크기념병원 |
| | 01월 23일 | 내성천 방문 | 내성천 |
| 2013년 | 02월 17일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 | 03월 29일 | 북녘 어린이를 위한 자비나눔 연가대회 | 북녘 어린이를 위한 자비나눔 연가대회 |
| | 04월 18일 | 송광정사원 | 송광정사원 |
| | 05월 22일 | 지도 행복할 일대 | 지도 행복할 일대 |
| | 06월 15일 | 점도마을 자재요양병원 | 점도마을 자재요양병원 |
| | 07월 23일 | 강서소방서 및 이대목동병원 | 강서소방서 및 이대목동병원 |
| | 09월 04일 | 서울시한가죽부모지원센터 | 서울시한가죽부모지원센터 |
| | 10월 20일 | 노동장애인연합회 | 노동장애인연합회 |
| | 11월 16일 |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 이주민 어울림한마당 |
| | 12월 17일 | 자비나눔(천주교, 기독교) 물품전달 | |
| 2014년 | 02월 11일 | 정릉3동주민센터(연탄나눔) | 정릉3동주민센터(연탄나눔) |
| | 04월 13일 | 의정부 영성고등학교(공학) | 영성고등학교 |
| | 09월 03일 | 12사단 52연대 향로암 | 12사단 52연대 향로암 |
| | 10월 08일 | 영등포 쪽방촌 | 영등포 쪽방촌 |
| | 10월 18일 | 화산체육관(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
| | 12월 22일 | 개미마을(연탄나눔) | 개미마을 |
| | 01월 27일 | 성가정입양원 | 성가정입양원 |
| | 02월 28일 | 도당하우스 | 도당하우스 |
| | 03월 20일 | 신강종합사회복지관 | 신강종합사회복지관 |
| | 04월 28일 | 여성장애인통합보육시설 ‘소밭’ | 여성장애인통합보육시설 ‘소밭’ |
| 2015년 | 06월 01일 | 신북장애인보육지원센터 | 신북장애인보육지원센터 |
| | 06월 27일 | 세월호 416가족협의회 | 세월호 416가족협의회 |
| | 07월 18일 | 한부모가족(BBS)거해연년 성금 | 한부모가족(BBS)거해연년 성금 |
| | 08월 30일 | 태릉선수촌 선수단 | 태릉선수촌 참가 선수단 |
| | 09월 05일 |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 난치병 어린이 |
| | 10월 21일 | 탄지니아 보기가람 농업기술대학 | 지역민 |
| | 11월 06일 | 충주종합복지센터 | 충주종합복지센터 |
| | 11월 06일 | 이주민문화가정 어울림한마당 |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
| | 12월 21일 | 죽지않는나눔 행사 | 일반시민 |
| | 01월 24일 |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
| 2016년 | 02월 16일 | 임학성 작가방학나눔기 | 초등학교 및 학생 1601명 |
| | 03월 21일 | 조순기정 장학금 지원(4층 집건실) | 조순기정 장학금 |
| | 04월 07일 |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지원 | 세월호 미수습유가족 |
| | 05월 18일 | 고양시덕양동신동화사회복지관 | 지역민 지원 |
| | 06월 28일 | KTX여성무원 | KTX여성무원 |
| | 07월 19일 | 난치병어린이지원(답십리정소년독서실) | 국내외난치병어린이 23명 |

매년 명절 불서 나누며 밝고 건강한 세상 발원

총무원장 스님 각계 각층에 불서보시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불서(佛書)는 불자는 물론 각박한 삶에 지친 현대인들이 마음의 묵은 때를 벗길 수 있는 대표적인 양서로 꼽힌다. 불교경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불교입문서에서부터 스님들의 일상이 담긴 에세이, 참선과 명상 수행 안내서에 이르기까지, 불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등불을 제시해 준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009년 제33대 총무원장 취임 이래 매년 명절마다 불서 2500여 권을 구입해 불교계 안팎 다양한 인사들에게 불서를 보내며 온정을 나눴다. 더욱이 불교계 지도자의 이 같은 보시는 불서 읽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면서 불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출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도 받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불서 보시는 취임 후 처음 맞은 명절인 2010년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시작했다. 당시 조계종 교육원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회가 펴낸 불교입문서 《부처님의 생애》를 각계에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부처님오신날과 추석 명절에도 불서 보시는 이어졌으며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014년 제34대 집행부 출범 후 맞은 첫 번째 명절 선물도 불서를 선택했다. 당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설날을 앞두고 “이웃에 기쁨을 더해 주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가는 한 해를 발원하면서 귀한 날을 맞아 두 권의 책으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자 한다”며 《나는 문학으로 출가했다》와 《마음이 행복하려면》 등 불서 2권을 사회 각계 인사 2500여 명에게 선물했다. 이 가운데 《나는 문학으로 출가했다》는 불교신문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문학인의 불교인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연재됐던 기획 기사를 보완해 단행본으로 엮은 구도 에세이다. 총무원장 스님은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마음까지 편안히 해주는 지혜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면서 “두 권의 책과 함께 마음이 편안해 지는 설날이 되길 기원한다”고 새해 덕담도 함께 전했다. 이와 더불어 총무원장 스님은 직접 선불학 책을 선별하는 것은 물론 책 속에 동봉하는 편지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종교인이 읽어도 불편하지 않는 불서’, ‘지혜를 증장시키고 화합의 기운을 충전해 해주는 책’ 등이 총무원장 스님의 책 선별기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고른 책들은 받은 이들에게 감동을 추기에 충분하다. 실제 2014년 9월 추석 때 불서를 받은 경기도 소재한 소방서의 서장은 “총무원장 스님께서 보내주시는 책 《사람의 맨발》 표지사진을 보고 문득 제

어머니의 발이 떠올랐다”면서 총무원장 스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당시 그는 편지를 통해 “우리 주변이 온통 손과 발뿐만 아닌 마음에도 용이 박힌 채로 살아가는 요즘”이라며 “어려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용이진 마음에 가르침을 받으라는 뜻으로 알고 우리 소방서 도서관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널리 읽도록 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불서 한 권이 종교를 초월해 국민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당신은 부처님》, 《탄허록》, 《술에는 갈증이 없다》, 《붓다브레인》, 《하늘이 감춘 땅》,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현문우담》, 《마음 밖에 무일 심지》, 《들으수록 신기한 사찰 이야기》, 《오체투지》, 《모두가 지켜야 할 겨울이야기》 등 그동안 선불학 불서만 30여 종 12만여 권에 달한다. 오는 10월31일 두 번째 임기를 마무리하는 총무원장 스님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현직 총무원장으로서 마지막 불서 보시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는 어떤 책으로 대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